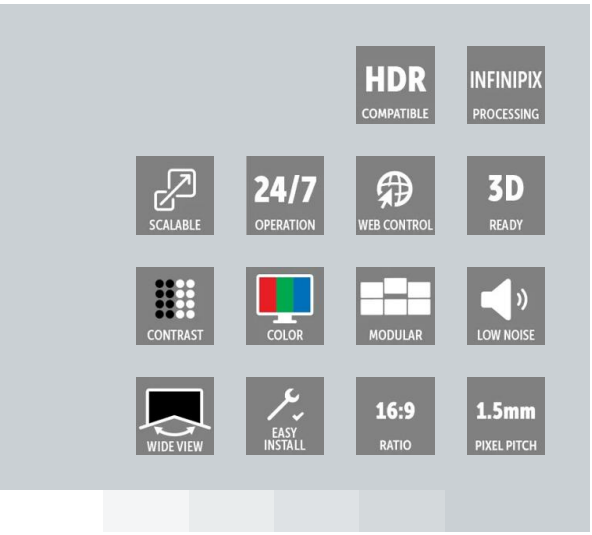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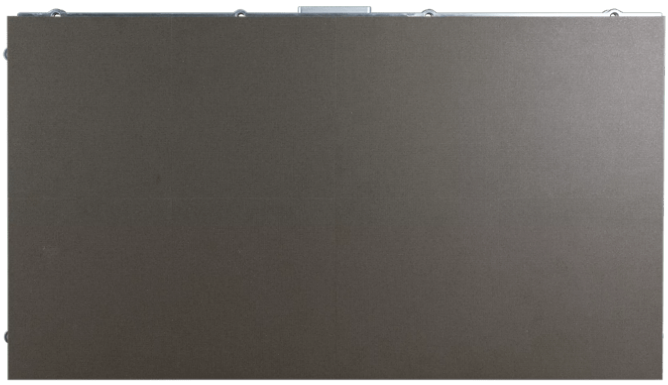
XT1.5

1.5mm 픽셀 피치, 고해상도 실내용 LED 디스플레이





- **16:9 화면 비율, 27인치 타일**
- **Barco InfinipixTM로 구동**
- **Rec. 709 색 보정**
- **손쉬운 사용, 설치 및 유지보수**
- **제품 가동 시간 극대화**

새로운 XT 시리즈가 Barco의 고해상도 실내용 LED 타일 포트폴리오를 더욱 확장합니다. 픽셀 피치 범위 0.9mm에서 1.9mm 사이의 27인치 타일 덕분에 매끄러운 고품질 화면을 보여주며, 시리즈에는 LED 월의 신뢰성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이 담겨 있습니다.

뛰어난 시각적 경험

각 타일은 16:9 화면 비율을 가지기 때문에 네이티브 Full HD 또는 UHD 화면을 구현하는 것이 매우 쉬워집니다. 따라서 가장 널리 쓰이는 포맷으로 압축된 부분이나 사용하지 않는 캔버스 없이 풀 화면 디스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또한, 카메라 지원 경계선 수정 기술로 타일들을 쉽게 정렬할 수 있어 경계선이 없는 하나의 캔버스처럼 보이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쉬운 설치 및 유지보수

이 LED 타일은 벽면 고정용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앞뒤에서 전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며 깊이가 얕습니다. 향상된 견고함과 함께 지원 모듈 추출(Assisted Module Extraction)로 픽셀 손상에 대한 위험은 줄이면서 유지보수 또는 교체 용도로 타일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항상 고급 화질 유지

InfinipixTM 덕분에 지속적인 Rec.709 색 정확도로 어두움 모드 및 고휘도 모드에서 모두 화질이 완벽합니다. 비디오 아티팩트는 빠르게 움직이는 콘텐츠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InfinipixTM가 적용되어 빠르게 움직이는 이미지에서도 이미지 갈라짐이나 비디오 끊김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동 보정 기능은 비디오 월 전체를 언제나 완벽하게 균일한 상태로 유지시켜 줍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뢰도

중요한 환경에서 직하형 LED 사용을 지원하고 휴지시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원과 데이터의 리던던시가 XT0.9에서 통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전체 월이 꺼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경고를 보내어 월 고장 시 대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XT 시리즈 디스플레이의 제품 보증 기간은 3년입니다. EssentialCare 유지보수 계약을 추가적으로 신청하면 최대 7년까지 배치와 호환되는 모듈을 제공받아 더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사양	XT1.5
일반 사양	
픽셀 피치	1.5mm
타일당 화소	384 x 216 px (HxV)
LED 수명	100,000시간(동영상 -50% 밝기)
밝기	800니트
처리	23 비트
색상	281조
컨트롤	Infinipix™
리프레시 속도	3,840Hz
수평 시야각	160° +/-5° (50% 밝기에서)
수직 시야각	160° +/-5° (50% 밝기에서)
밝기 균일도	>98%
조도 조절	0-100%
인체공학	특허 받은 드라이버 알고리즘으로 눈의 피로를 줄임
명암비	>9,000:1
전력 소비	256 W/m²(평균.) 663 W/m² (최대.)
열 소산	873 BTU/hr/m²(일반) 2,261 BTU/hr/m²(최대)
작동 전압	100-240V/50-60Hz
작동 온도	-10°C ~ +40°C / 14°F ~ 104°F
작동 습도	10-80%
IP 등급	IP30
3D	3D 지원
오목한 곡선률	최대 10° 타일 간격
볼록한 곡선률	90° 모서리 지원
HDR	HLG / HDR10 / HDR10+ 지원
크기	609.92 x 343.08 x 71mm(WxHxD)/ 24.01 x 13.51 x 2.79인치(WxHxD)
무게/타일	7.5kg
용이성	전면 서비스만 해당
모듈 교체	자동화된 전자동 추출
이음새 보정	자동 카메라 기반 이음새 보정
인증	CE, ULL, FCC Class A, RoHS, WEE, REACH
화면 비율	16:9
보증	3 년 표준 제품 보증 최대 7 년의 배치 호환 모듈과 EssentialCare 유지 보수 계약

작성일: 22 Jun 2023

기술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www.barco.com에서 확인하십시오.